

경제

■ '천정부지' 금값에 우는 광주 금은방 르포

손님 뚝... "차라리 문닫는게 낫죠"

"금값이 오를수록 손님들은 더 줄어드는게 같아요."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기에서 20년째 금은방을 운영해온 김모(59)씨는 폐업을 고민 중이다.

'금대신 현금'... 혼수·돌잔치 특수도 사라져
매출 60~70% 금감... 절반 이상 회비도 못내

김씨는 "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2500원, 18K는 15만8812원 14K는 12만4201원이다.
금값은 지난 5월 24K 3.75g이 18만원대를 돌파한 뒤 지난 10일에는 20만130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광주지역 금은방에서는 거래되고 있는 금 소매가격은 24K 기준으로 20만~22만원. 1년 전 15만~17만원 사이에 거래됐던 금값이 30% 가까이 치솟았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손님들의 발걸음까지 줄면서 광주지역 귀금속 업체는 매출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현재 영업하고 있는 금은방은 100여곳에 불과하며 150개의 회원업체 중 80여 곳이 회비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회원업체도 10년 사이 380곳에서 150곳으로 60%나 급감했으며 그 사이 매출도 60~70% 가량 줄었다.

예를 간소화와 돌잔치를 현금 등으로 대신하는 추세까지 더해지면서 금은방 업계는 겹시름을 앓고 있다.

금남지하상가에서 금호당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찬호씨는 "가금 돌잔치 등을 사기 위해 찾아오는 고객들도 비싼 금값 때문에 저렴한 미아 방지용 14·18K 목걸이나 팔찌, 은수저세트 등을 찾는다"며 "혼수, 돌잔치 특수도 사라진지 오래고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환율이 내리면서 국내 금값은 소폭 내렸다"며 "금값도 안정되고 소비심리도 살아나 귀금속 업계에 활기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삼성광주전자서 만들어요" 삼성전자는 24일 스틱형 3종과 핸디형 5종 등 흡입력을 강화한 무선 청소기 8종을 새로 출시했다. 이들 제품은 삼성광주전자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트윈 챔버 시스템(공기유입 통로와 먼지방울 분리)이 적용됐다.

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

오늘 오후 5시께 결과 나올듯... 광주상의 자제 호소

다들달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근로시간제한) 적용을 놓고 사측과 대립 중인 기아자동차 노조가 24일 각 공장별로 일제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24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광주·화성·소하리 등 5개 지회는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후 1시30분까지 조합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는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4월말 현재 전임자 수 유지·노조가 고용할 상근자 급여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협약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8차례에 걸쳐 상건례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불법을 강요하는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상건례를 거부한 채 노조 전임자들에게 다음달 1일자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기아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돌입하면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된다.

노조는 타임오프가 적용되면 현재 전임자 136명이 18명으로 줄어들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말 현재 전임자 수 유지·노조가 고용할 상근자 급여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협약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8차례에 걸쳐 상건례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불법을 강요하는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상건례를 거부한 채 노조 전임자들에게 다음달 1일자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기아차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돌입하면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된다.

생산직 반장들의 모임인 생산자관리협의회와 기아노동자연대는 "관행적 파업보다는 내실있는 집단협약을 해야 한다"며 강경일변도의 노조 지도부를 비판, 찬반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광주상공회의소는 24일 호소문을 내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아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시행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타임오프제는 고집 대상이나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특히 최근 추진 중인 광주공장의 연간 50만대 생산체제 구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기아차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에 대한 현명한 선택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 한국로보트보쉬

자동차부품 '전략적 제휴'

금호타이어(대표이사 김중호)는 24일 한국로보트보쉬(주)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사업부와 비즈니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로보트보쉬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보쉬의 한국 내 자회사로, 자동차부품과 전동공구·자동차용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협약서 체결로 양사는 앞으로 3년간 새시 및 타이어 관련 정비·자동차부품 지원과 기술 교육, 교육센터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김중호(왼쪽)와 김중호(가운데)는 24일 한국로보트보쉬(주)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사업부와 비즈니스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주유소 영업 6~7시간 줄여라"

중기청, 첫 강제조정

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사이의 상권 침해 분쟁에 대해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측에 영업시간을 6~7시간 줄이라는 첫 강제조정안을 내놓는다.

중기청은 군산·구미 등 이마트 주유소 2곳을 상대로 한국주유소 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다른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이마트 주유소 2곳이 인근 자영 주유소에 일정 정도의 영업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유소 운영시간을 6~7시간 줄이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군산·구미 이마트 주유소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 동안 영업할 수 있다. 군산 이마트 주유소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구미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기업청은 다음 주에 이 권고안을 토대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권고안 내용과 다른 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두 주유소가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중기청은 이를 외부에 공표한다.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권고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게 된다. 이번 권고는 유사한 분쟁을 해결할 때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5.8% 대폭 상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5% 내외에서 5.8%로 대폭 올려 잡고 내년도도 5%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및 내년 경제전망을 담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기저효과 등으로 1분기(8.1%)보다 둔화되었지만 6.3%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추세 수준의 성장세(전기비 1% 내외)를 지속해 연간 5.8%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립뉴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739.87), 코스닥지수 (499.14), 금리 (3.90%), 원·달러 환율 (1,188.80원).

울 전남 화훼 수출 급증

aT 전남지사 150만달러... 전년비 4배

울에서 전남지역 화훼류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전남지사에 따르면 울 1월부터 5월말까지 전남지역 농가의 화훼류 총수출액은 15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만달러의 4배를 넘어섰다.

품목별로는 난류(양란)가 중국과 일본 등지에 120만달러 가량 수출했으며, 국화류 10만달러, 수국 10만달러, 기타 10만달러였다.

aT전남지사는 울 하반기 국화와 수국의 수출이 순조로울 경우 지난해 총수출액 39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이날 발표한 '최근의 광주·전남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4월 중 제조업 생산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3%의 증가세를 보였고 전년보다 5.3% 증가했다. 5월 중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평균 51.6% 증가했으며, 고용사정은 서비스업(-1만8700명) 취업자수가 크게 줄어 개선세가 둔화했으며 실업률은 전달(2.9%)보다 하락한 2.3%를 기록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울 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건물매매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경리하십시오.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지구
상가 임대: 60m 대로면 2,3층 450평(분할가능)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